

10. 여가문화

10-1 문화·예술·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횟수

10-2 문화·예술·체육시설의 필요성과 가장 필요한 시설

10-3 전남 관광여부와 만족한 점(복수응답)

10-4 전남 관광여부와 선택한 이유(복수응답)

10-5 전남 관광여부와 관광지 정보 획득방법(복수응답)

10-6 독서여부 및 독서량

10-7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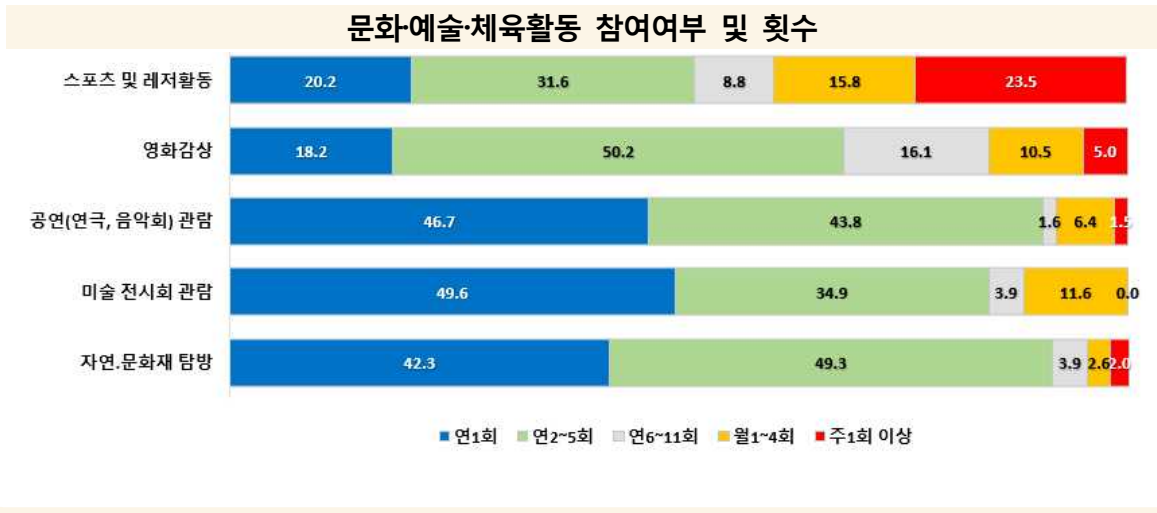
10-8 독서량 부족이유(복수응답)

10-1 문화·예술·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횟수

문화·예술·체육활동은 「자연·문화재 탐방」(51.9%)

- 문화·예술·체육활동 참여도는 「자연·문화재 탐방」 51.9%, 「영화감상」 35.0%, 「스포츠 및 레저 활동」 31.0%, 「공연관람(연극, 음악회 등)」 14.4%, 「미술 전시회 관람」 10.0% 순으로 나타남

-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활동에서 2017년과 유사한 참여율을 보임.
- 지역별로 비교적 북부권에서 참여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.
- 여자보다 남자의 참여가 더 높게 나타나며,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력일수록, 소득이 높을수록 모든 활동에서 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.
- 연령별로 15세~49세는 「영화감상」 참여율이 가장 높고, 50세 이상은 「자연·문화재 탐방」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.
- 직업별로 전문/관리직과 사무직 종사자의 참여도가 비교적 높고, 농림어업 종사자의 참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.
- 「스포츠 및 레저 활동」은 주1회 이상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며, 다른 활동에 비해 참여횟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. 「스포츠 및 레저 활동」, 「영화감상」과 「자연·문화재 탐방」은 연2~5회 참여횟수로 나타났고, 「공연관람(연극, 음악회 등)」, 「미술 전시회 관람」은 연 1회로 가장 낮은 참여횟수로 조사됨.



[표 10-1] 문화예술·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횟수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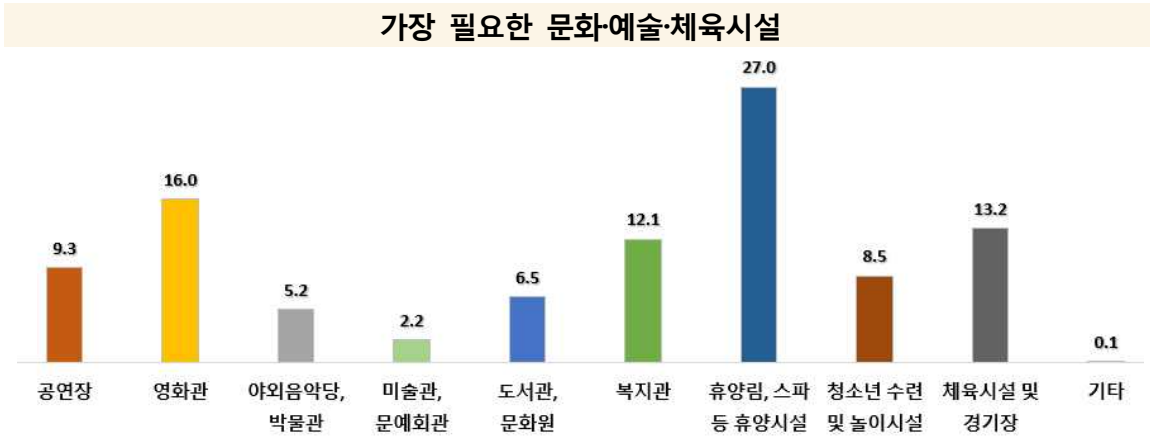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계 | 참여함 | 소계 | 참여횟수 | | | | | 참여하지 않음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| | | | 연1회 | 연2~5회 | 연6~11회 | 월1~4회 | 주1회 이상 | |
| 스포츠 및 레저활동 | 100.0 | 31.0 | 100.0 | 20.2 | 31.6 | 8.8 | 15.8 | 23.5 | 69.0 |
| 영화감상 | 100.0 | 35.0 | 100.0 | 18.2 | 50.2 | 16.1 | 10.5 | 5.0 | 65.0 |
| 공연(연극, 음악회) 관람 | 100.0 | 14.4 | 100.0 | 46.7 | 43.8 | 1.6 | 6.4 | 1.5 | 85.6 |
| 미술 전시회 관람 | 100.0 | 10.0 | 100.0 | 49.6 | 34.9 | 3.9 | 11.6 | 0.0 | 90.0 |
| 자연·문화재 탐방 | 100.0 | 51.9 | 100.0 | 42.3 | 49.3 | 3.9 | 2.6 | 2.0 | 48.1 |

자료: 신안군 사회조사

10-2 문화·예술·체육시설의 필요성과 가장 필요한 시설

문화·예술·체육시설이 더 필요하다 63.8% 필요시설은 「휴양시설」

- 우리 지역에 문화·예술·체육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63.8% 응답함.
 - 연령대가 낮아질수록, 고학력일수록,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은 증가함.
 - 지역별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북부권(75.5%), 중부권(65.3%), 서남부권(55.1%)순으로 나타남.
- 가장 필요한 시설은 「휴양림, 스파 등 휴양시설」이 27.0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「영화관」 16.0%, 「체육시설 및 경기장」 13.2%, 「복지관」 12.1% 순으로 나타남.
 -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「휴양림, 스파 등 휴양시설」의 응답이 증가하는 반면,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「영화관」의 응답이 증가함.



[표 10-2] 문화·예술·체육시설의 필요성과 가장 필요한 시설

(단위: %)

| 구분 | 계 | 필요하다 | 가장 필요한 시설 | | | | | | | | | | | 필요하지 않다 |
|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|
| | | | 소계 | 공연장 | 영화관 | 야외음악당, 박물관 | 미술관, 문예회관 | 도서관, 문화원 | 복지관 | 휴양림, 스파 등 휴양시설 | 청소년 수련 및 놀이시설 | 체육시설 및 경기장 | 기타 | |
| 2019년 | 100.0 | 63.8 | 1000 | 9.3 | 16.0 | 5.2 | 2.2 | 6.5 | 12.1 | 27.0 | 8.5 | 13.2 | 0.1 | 36.2 |
| <지역별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중부권 | 100.0 | 65.3 | 1000 | 13.7 | 15.9 | 5.7 | 1.7 | 4.7 | 13.6 | 28.0 | 4.9 | 11.8 | | 34.7 |
| 북부권 | 100.0 | 75.5 | 1000 | 4.5 | 15.9 | 2.5 | 1.4 | 8.4 | 15.4 | 29.9 | 7.0 | 14.8 | 0.3 | 24.5 |
| 서남부권 | 100.0 | 55.1 | 1000 | 8.3 | 16.3 | 6.9 | 3.5 | 6.8 | 7.5 | 23.6 | 13.5 | 13.6 | | 44.9 |
| <성별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남자 | 100.0 | 70.0 | 1000 | 9.6 | 14.7 | 4.2 | 1.7 | 5.9 | 10.8 | 26.4 | 9.6 | 17.0 | 0.1 | 30.0 |
| 여자 | 100.0 | 56.8 | 1000 | 8.9 | 17.8 | 6.6 | 3.0 | 7.4 | 13.8 | 27.9 | 6.8 | 7.8 | 0.1 | 43.2 |
| <연령별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5~29세 | 100.0 | 86.1 | 1000 | 9.3 | 25.2 | 7.5 | | 9.4 | 1.6 | 19.1 | 15.7 | 12.3 | | 13.9 |
| 30~39세 | 100.0 | 85.4 | 1000 | 7.9 | 17.5 | 3.4 | 1.8 | 8.9 | 4.2 | 25.8 | 17.0 | 13.5 | | 14.6 |
| 40~49세 | 100.0 | 87.0 | 1000 | 11.3 | 18.6 | 3.2 | 2.3 | 10.3 | 5.4 | 24.1 | 7.3 | 17.5 | | 13.0 |
| 50~59세 | 100.0 | 73.0 | 1000 | 11.7 | 14.5 | 6.9 | 3.4 | 4.6 | 11.4 | 26.6 | 6.9 | 13.9 | 0.2 | 27.0 |
| 60세 이상 | 100.0 | 44.6 | 1000 | 7.2 | 10.3 | 4.6 | 2.7 | 3.3 | 24.6 | 33.3 | 3.1 | 10.7 | 0.1 | 55.4 |
| 65세 이상 | 100.0 | 37.9 | 1000 | 6.6 | 8.2 | 3.5 | 2.0 | 3.0 | 28.1 | 36.0 | 2.5 | 10.0 | | 62.1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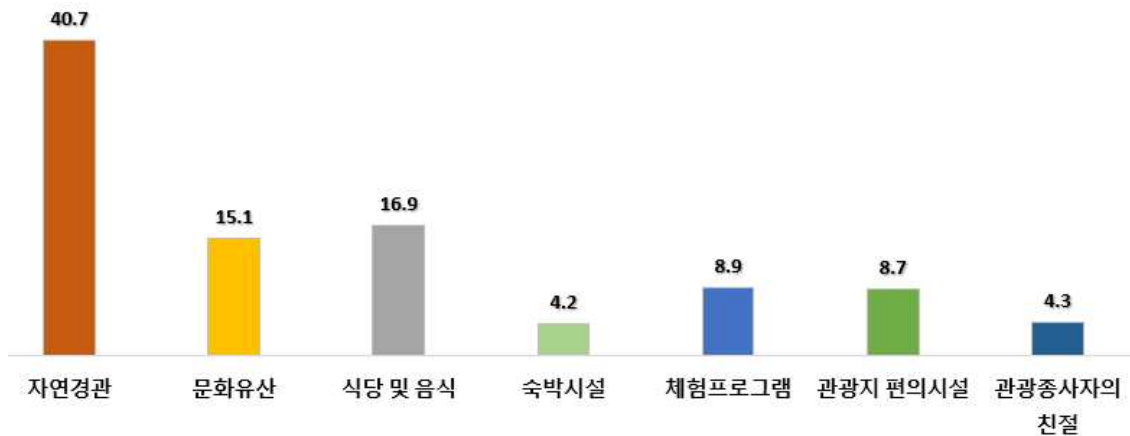
자료: 신안군 사회조사

10-3 전남 관광여부와 만족한 점(복수응답)

전남 내 관광지를 다녀왔다 54.1%, 「자연경관」을 가장 만족

- 지난 2년('17. 8. 23.~'19. 8. 22.)동안 관광을 목적으로 전남 내 관광지를 다녀온 적이 「있다」고 54.1% 응답.
 - 지역별로 북부권이 71.1%로 가장 높고, 중부권(53.5%), 서남부권(44.1%) 순으로 나타남.
 - 남자(61.3%)가 여자(46.0%)보다 응답이 더 높았고,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.
- 전남 내 관광하면서 만족했던 점은 「자연경관」이 40.7%로 가장 높고, 「식당 및 음식」 16.9%, 「문화유산」 15.1% 순으로 나타남.

전남 관광 만족한 점



[표 10-3] 전남 관광여부와 만족한 점(복수응답)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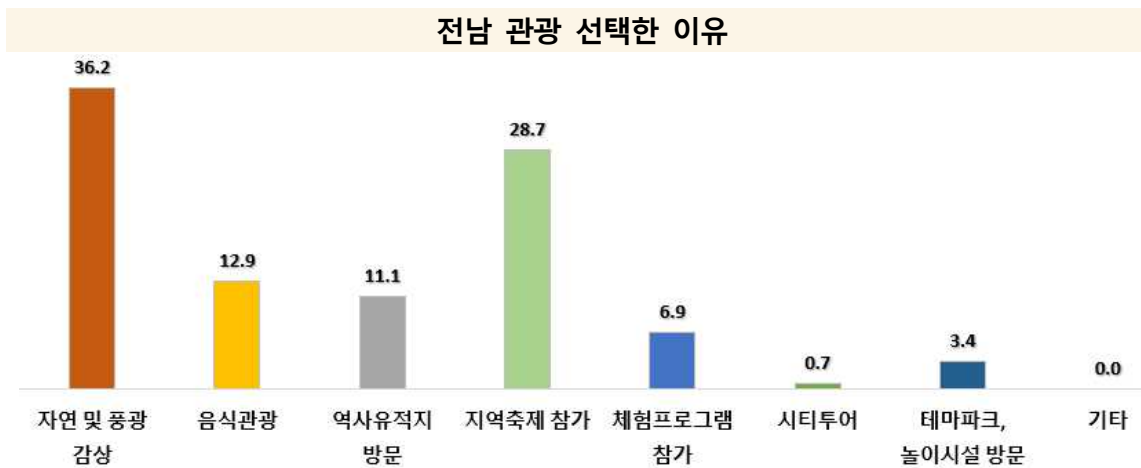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계 | 관광한 적 있다 | 만족한 점 | | | | | | | | | | 관광한 적 없다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| 소계 | 자연 경관 | 문화 유산 | 식당 및 음식 | 숙박 시설 | 체험프 로그램 | 관광지 편의 시설 | 관광종 사자의 친절 | 기타 | 해당 없음 | |
| 2017년 | - | - | 100.0 | 30.3 | 10.1 | 16.8 | 3.7 | 8.1 | 6.7 | 1.1 | 23.3 | - | - |
| 2019년 | 100.0 | 54.1 | 100.0 | 40.7 | 15.1 | 16.9 | 4.2 | 8.9 | 8.7 | 4.3 | 0.0 | 1.2 | 45.9 |
| <지역별>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중부권 | 100.0 | 53.5 | 100.0 | 43.8 | 13.9 | 23.6 | 4.4 | 4.9 | 4.1 | 5.3 | | | 46.5 |
| 북부권 | 100.0 | 71.1 | 100.0 | 38.9 | 8.6 | 16.9 | 5.5 | 8.9 | 14.7 | 5.1 | | 1.5 | 28.9 |
| 서남부권 | 100.0 | 44.1 | 100.0 | 38.3 | 22.6 | 8.8 | 2.6 | 13.7 | 9.0 | 2.4 | | 2.6 | 55.9 |
| <성별>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남자 | 100.0 | 61.3 | 100.0 | 38.7 | 14.4 | 16.5 | 4.6 | 10.6 | 9.2 | 4.5 | | 1.5 | 38.7 |
| 여자 | 100.0 | 46.0 | 100.0 | 43.7 | 16.1 | 17.6 | 3.5 | 6.4 | 8.0 | 4.0 | | 0.8 | 54.0 |
| <연령별>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5~29세 | 100.0 | 66.4 | 100.0 | 32.8 | 13.4 | 11.1 | 10.2 | 16.9 | 8.9 | 3.0 | | 3.8 | 33.6 |
| 30~39세 | 100.0 | 57.5 | 100.0 | 31.4 | 12.9 | 16.5 | 2.5 | 18.2 | 10.6 | 6.8 | | 1.0 | 42.5 |
| 40~49세 | 100.0 | 67.5 | 100.0 | 41.7 | 15.0 | 14.0 | 5.0 | 9.3 | 10.7 | 3.8 | | 0.6 | 32.5 |
| 50~59세 | 100.0 | 64.8 | 100.0 | 42.6 | 14.6 | 17.8 | 2.5 | 9.0 | 8.3 | 4.6 | | 0.6 | 35.2 |
| 60세 이상 | 100.0 | 42.6 | 100.0 | 44.3 | 16.6 | 19.9 | 2.9 | 3.5 | 7.7 | 4.2 | | 0.9 | 57.4 |
| 65세 이상 | 100.0 | 36.7 | 100.0 | 44.6 | 15.6 | 21.2 | 2.4 | 3.0 | 7.9 | 4.2 | | 1.0 | 63.3 |

자료: 신안군 사회조사

10-4 전남 관광 선택한 이유(복수응답)

전남 내 관광지를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는 「자연 및 풍경감상」

- 전남 내 관광지를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는 「자연 및 풍경 감상」 36.2%, 「지역축제 참가」 28.7%, 「음식관광」 12.9% 순으로 나타남.
-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등 모든 분류에서 「자연 및 풍경 감상」과 「지역축제 참가」에 응답이 집중되어 있음.
-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「자연 및 풍경 감상」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,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「지역축제 참가」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.



[표 10-4] 전남 관광여부와 선택한 이유(복수응답)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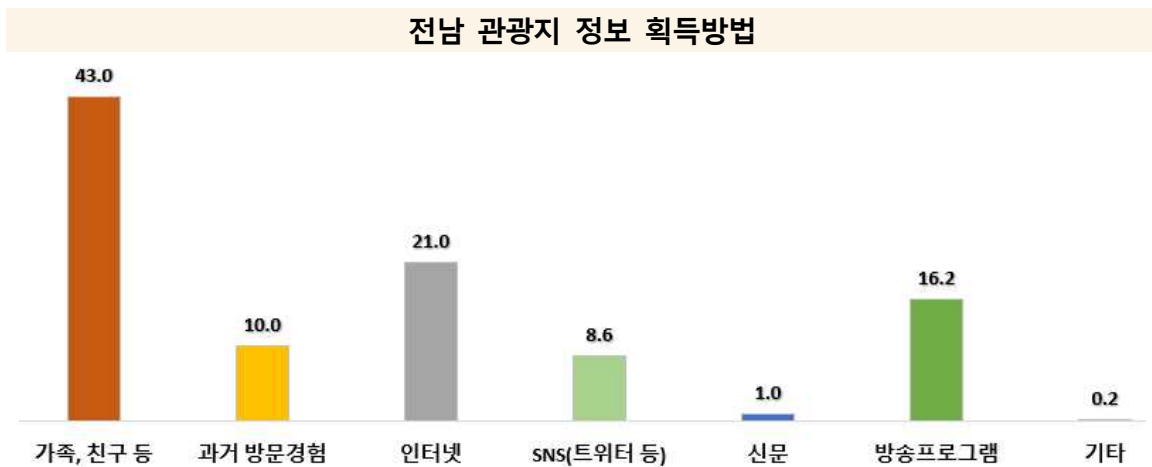
| 구 분 | 계 | 관광한 적 있다 | | | | | | | | | | 관광한 적 없다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|
| | | 소계 | 자연 및 풍경 감상 | 음식관광 | 역사유적지 방문 | 지역축제 참가 | 체험프로그램 참가 | 시티투어 | 테마파크, 놀이시설 방문 | 기타 | | |
| 2017년 | - | 100.0 | 25.7 | 12.7 | 6.8 | 21.5 | 5.6 | 1.5 | 2.9 | 23.4 | - | |
| 2019년 | 100.0 | 54.1 | 100.0 | 36.2 | 12.9 | 11.1 | 28.7 | 6.9 | 0.7 | 3.4 | 0.0 | 45.9 |
| < 지역 별 >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중부권 | 100.0 | 53.5 | 100.0 | 35.1 | 15.4 | 9.0 | 29.3 | 7.8 | 0.5 | 2.8 | 0.1 | 46.5 |
| 북부권 | 100.0 | 71.1 | 100.0 | 35.6 | 17.2 | 3.8 | 31.7 | 6.2 | 0.5 | 4.9 | | 28.9 |
| 서남부권 | 100.0 | 44.1 | 100.0 | 37.6 | 6.0 | 20.5 | 25.5 | 6.6 | 1.0 | 2.8 | | 55.9 |
| < 성 별 >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남자 | 100.0 | 61.3 | 100.0 | 35.7 | 12.2 | 11.3 | 28.0 | 7.9 | 0.6 | 4.4 | | 38.7 |
| 여자 | 100.0 | 46.0 | 100.0 | 36.9 | 14.0 | 11.0 | 29.9 | 5.4 | 0.8 | | 0.1 | 54.0 |
| < 연령 별 >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5~29세 | 100.0 | 66.4 | 100.0 | 24.1 | 7.4 | 17.2 | 24.1 | 11.4 | | 15.8 | | 33.6 |
| 30~39세 | 100.0 | 57.5 | 100.0 | 27.5 | 11.6 | 8.0 | 32.4 | 14.6 | | 6.0 | | 42.5 |
| 40~49세 | 100.0 | 67.5 | 100.0 | 36.6 | 10.7 | 11.2 | 32.2 | 6.2 | 0.5 | 2.6 | | 32.5 |
| 50~59세 | 100.0 | 64.8 | 100.0 | 39.3 | 14.7 | 10.7 | 27.4 | 6.2 | 1.4 | 0.3 | | 35.2 |
| 60세 이상 | 100.0 | 42.6 | 100.0 | 41.0 | 15.4 | 9.8 | 29.2 | 3.8 | 0.7 | | 0.1 | 57.4 |
| 65세 이상 | 100.0 | 36.7 | 100.0 | 40.6 | 16.6 | 9.4 | 28.5 | 4.1 | 0.8 | | | 63.3 |

자료: 신안군 사회조사

10-5 전남 관광지 정보 획득방법(복수응답)

전남 내 관광지 정보는 「가족, 친구 등」(43.0%)을 통해 획득

- 전남 내 관광지 정보 얻는 방법은 「가족, 친구 등」이 43.0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「인터넷」 21.0%, 「방송프로그램」 16.2% 순으로 응답함.
- 201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「가족, 친구 등」(44.3%) 다음으로 「방송프로그램」(23.7%), 「인터넷」(14.4%)순으로 나타났으나, 2019년도는 「인터넷」, 「방송프로그램」 순으로 변경됨.
- 연령별로 15세~29세, 30대는 「인터넷」 응답이 가장 많았고, 연령이 높아질수록 「가족, 친구 등」, 「방송프로그램」을 통해 획득한다는 응답이 증가함.
-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「가족, 친구 등」, 「인터넷」, 「SNS」에 응답이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.



[표 10-5] 전남 관광여부와 관광지 정보 획득방법(복수응답)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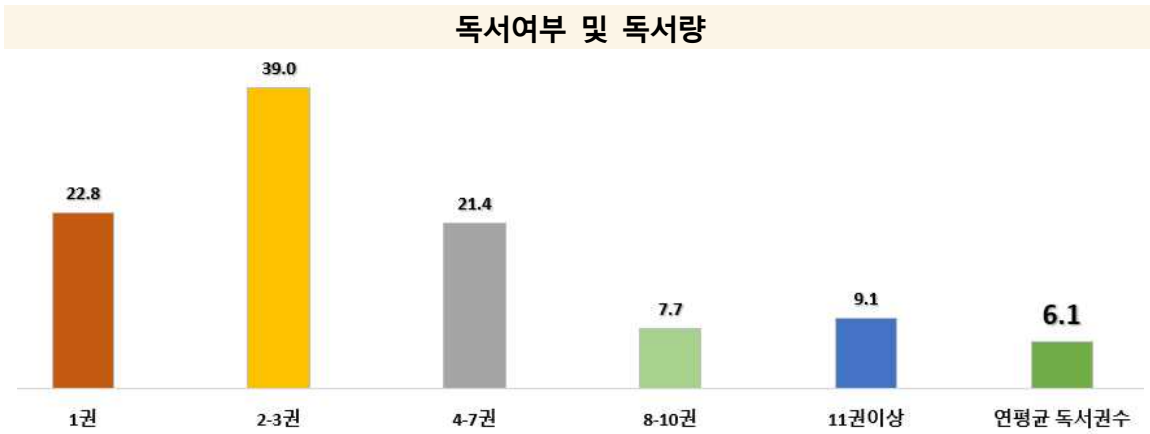
| 구 분 | 계 | 관광한 적 있다 | 관광지 정보 획득방법 | | | | | | | | 관광한 적 없다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
| | | | 소개 | 가족, 친구 등 | 과거 방문경험 | 인터넷 | SNS(트 위터 등) | 신문 | 방송프 로그램 | 기타 | |
| 2017년 | - | - | 100.0 | 44.3 | 6.8 | 14.4 | 4.3 | 2.4 | 23.7 | 4.2 | - |
| 2019년 | 100.0 | 54.1 | 100.0 | 43.0 | 10.0 | 21.0 | 8.6 | 1.0 | 16.2 | 0.2 | 45.9 |
| < 지역 별 > | | | | | | | | | | | |
| 중부권 | 100.0 | 53.5 | 100.0 | 44.7 | 10.1 | 20.0 | 8.5 | 1.2 | 15.5 | | 46.5 |
| 북부권 | 100.0 | 71.1 | 100.0 | 46.6 | 12.6 | 18.8 | 6.4 | 0.5 | 14.4 | 0.7 | 28.9 |
| 서남부권 | 100.0 | 44.1 | 100.0 | 37.3 | 7.1 | 24.3 | 11.0 | 1.3 | 18.9 | | 55.9 |
| < 성 별 > | | | | | | | | | | | |
| 남자 | 100.0 | 61.3 | 100.0 | 40.7 | 9.0 | 25.1 | 10.1 | 1.1 | 14.0 | 0.1 | 38.7 |
| 여자 | 100.0 | 46.0 | 100.0 | 46.4 | 11.9 | 14.6 | 6.1 | 0.9 | 19.9 | 0.4 | 54.0 |
| < 연령 별 > | | | | | | | | | | | |
| 15~29세 | 100.0 | 66.4 | 100.0 | 30.4 | 7.3 | 32.2 | 26.2 | 0.0 | 3.0 | 0.9 | 33.6 |
| 30~39세 | 100.0 | 57.5 | 100.0 | 38.1 | 7.5 | 35.7 | 12.5 | 0.9 | 5.4 | | 42.5 |
| 40~49세 | 100.0 | 67.5 | 100.0 | 32.7 | 7.2 | 36.0 | 12.0 | 1.5 | 10.5 | | 32.5 |
| 50~59세 | 100.0 | 64.8 | 100.0 | 41.8 | 12.0 | 22.8 | 3.3 | 0.6 | 19.5 | | 35.2 |
| 60세 이상 | 100.0 | 42.6 | 100.0 | 53.6 | 12.5 | 4.3 | 1.1 | 1.6 | 26.6 | 0.2 | 57.4 |
| 65세 이상 | 100.0 | 36.7 | 100.0 | 55.3 | 11.9 | 3.3 | 0.5 | 1.7 | 27.3 | | 63.3 |

자료: 신안군 사회조사

10-6 독서여부 및 독서량

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사람은 48.6%, 「2~3권」 39.0%

- 지난 1년(‘18. 8. 23.~’19. 8. 22.)동안 48.6% 책을 읽었으며, 책을 읽은 사람의 독서량은 「2~3권」 응답률이 39.0%로 가장 높고, 연평균 독서량은 6.1권으로 조사됨.
- 2017년 대비 「책을 읽음」 비율은 45.2%에서 48.6%로 증가하였으나 연평균 독서권수 6.6권에 서 6.1권으로 감소함.
- 지역별로 서남부권(54.2%)에서 가장 독서를 많이 하고, 중부권(49.5%), 북부권(38.4%) 순으로 나타남.
- 연령이 낮을수록, 학력이 높을수록 「책을 읽음」 응답률이 증가함.
- 남자(55.9%, 7.4권)가 여자(40.4%, 4.0권)보다 「책을 읽음」과 연평균 독서권수가 높음.
- 학력별로 대졸 이상은(78.6%, 10.0권)은 독서를 많이 하는 반면, 중졸 이하는 독서를 하는 응답 이 (33.6%, 3.5권)에 불가함.



[표 10-6] 독서여부 및 독서량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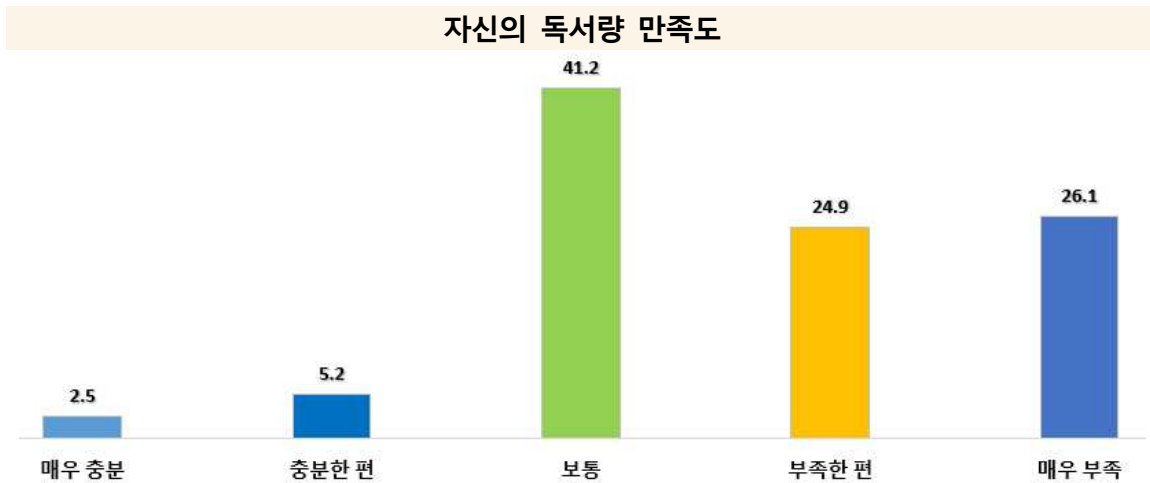
| 구 분 | 계 | 읽음 | | | | | | | | 연평균 독서권수 | 안읽음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|-----|
| | | 소계 | 1권 | 2-3권 | 4-7권 | 8-10권 | 11권 이상 | | | | |
| 2017년 | 100.0 | 45.2 | 100.0 | 18.1 | 42.8 | 20.8 | 8.1 | 10.2 | 6.6 | 54.8 | |
| 2019년 | 100.0 | 48.6 | 103.0 | 22.8 | 39.0 | 21.4 | 7.7 | 9.1 | 6.1 | 51.4 | |
| < 지역 별 > | | | | | | | | | | | |
| 중 부 권 | 100.0 | 49.5 | 100.0 | 26.5 | 39.6 | 13.8 | 6.7 | 13.4 | 7.6 | 50.5 | |
| 북 부 권 | 100.0 | 38.4 | 101.0 | 19.5 | 45.8 | 16.4 | 11.2 | 7.0 | 7.1 | 61.6 | |
| 서 남 부 권 | 100.0 | 54.2 | 102.0 | 20.9 | 35.4 | 30.4 | 7.0 | 6.2 | 4.4 | 45.8 | |
| < 성 별 > | | | | | | | | | | | |
| 남 자 | 100.0 | 55.9 | 109.0 | 20.0 | 37.4 | 22.2 | 8.6 | 11.8 | 7.4 | 44.1 | |
| 여 자 | 100.0 | 40.4 | 110.0 | 27.2 | 41.5 | 20.2 | 6.3 | 4.9 | 4.0 | 59.6 | |
| < 연 령 별 > | | | | | | | | | | | |
| 15 ~ 29 세 | 100.0 | 77.8 | 117.0 | 3.3 | 44.6 | 25.9 | 15.1 | 11.1 | 8.6 | 22.2 | |
| 30 ~ 39 세 | 100.0 | 73.3 | 118.0 | 25.0 | 30.6 | 24.9 | 5.6 | 13.9 | 5.2 | 26.7 | |
| 40 ~ 49 세 | 100.0 | 65.5 | 119.0 | 14.4 | 40.1 | 29.2 | 3.5 | 12.8 | 8.6 | 34.5 | |
| 50 ~ 59 세 | 100.0 | 58.1 | 120.0 | 23.8 | 39.3 | 19.3 | 9.4 | 8.1 | 5.8 | 41.9 | |
| 60 세 이상 | 100.0 | 28.6 | 121.0 | 39.4 | 37.8 | 13.9 | 4.6 | 4.3 | 3.6 | 71.4 | |
| 65 세 이상 | 100.0 | 23.5 | 129.0 | 45.4 | 36.1 | 9.6 | 4.1 | 4.8 | 3.6 | 76.5 | |

자료: 신안군 사회조사

10-7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

자신의 독서량에 대해 51.0%가 「부족하다」고 느낌

- 지난 1년('18. 8. 23.~'19. 8. 22.)동안 자신의 독서량에 대해 51.0%가 「부족하다」고 응답하였고, 2017년(71.0%) 대비 「부족하다」는 응답이 감소함.
-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등 모든 분류에서 자신의 독서량이 「부족하다」고 느끼며 만족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.



[표 10-7]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

(단위: %)

| 구 분 | 계 | 매우 충분 | 충분한 편 | 보통 | 부족한 편 | 매우 부족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2017년 | 100.0 | 4.2 | 5.2 | 19.6 | 25.0 | 46.0 |
| 2019년 | 100.0 | 2.5 | 5.2 | 41.2 | 24.9 | 26.1 |
| < 지역 별 > | | | | | | |
| 중 부 권 | 100.0 | 4.4 | 4.9 | 39.6 | 30.0 | 21.2 |
| 북 부 권 | 100.0 | 1.2 | 4.1 | 34.9 | 19.2 | 40.6 |
| 서 남 부 권 | 100.0 | 1.4 | 6.3 | 46.9 | 23.5 | 21.9 |
| < 성 별 > | | | | | | |
| 남 자 | 100.0 | 3.6 | 5.2 | 43.8 | 25.3 | 22.0 |
| 여 자 | 100.0 | 1.2 | 5.3 | 38.3 | 24.4 | 30.8 |
| < 연 령 별 > | | | | | | |
| 15 ~ 29 세 | 100.0 | 4.5 | 4.6 | 35.3 | 20.6 | 35.0 |
| 30 ~ 39 세 | 100.0 | 4.9 | 4.5 | 38.6 | 32.8 | 19.2 |
| 40 ~ 49 세 | 100.0 | 2.9 | 7.8 | 39.6 | 23.1 | 26.6 |
| 50 ~ 59 세 | 100.0 | 2.4 | 7.2 | 41.3 | 29.8 | 19.3 |
| 60 세 이상 | 100.0 | 1.4 | 4.1 | 43.7 | 23.1 | 27.8 |
| 65 세 이상 | 100.0 | 1.4 | 3.4 | 44.1 | 22.2 | 28.9 |

자료: 신안군 사회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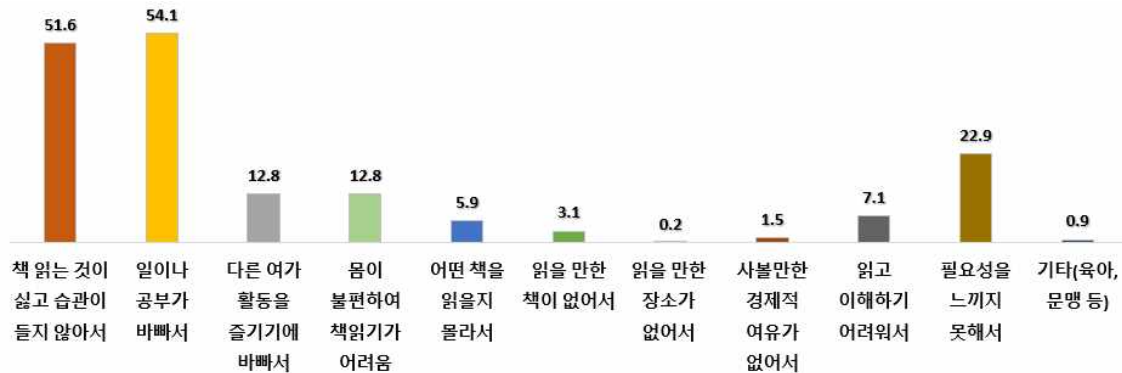
10-8 독서량 부족이유(복수응답)

「일이나 공부가 바빠서」

- 독서량이 「부족하다」고 느끼는 사람이 자신의 독서량이 부족한 이유로 「일이나 공부가 바빠서」 54.1%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며, 다음으로 「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」가 51.6%, 「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」 22.9% 순으로 나타남

- 지역별로 중부권은 「일이나 공부가 바빠서」 응답이 62.4%로 가장 높았고, 북부권(58.9%), 서남부권(47.8%)은 「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」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.
- 연령이 높을수록 「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」, 「몸이 불편하여 책읽기가 어려움」 응답이 증가하며, 반대로 「다른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바빠서」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.

독서량 부족이유



[표 10-8] 독서량 부족이유(복수응답)

(단위: %)

| 구분 |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|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 | 다른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바빠서 | 몸이 불편하여 책읽기가 어려움 |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|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| 읽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| 사볼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| 읽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|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| 기타(육아, 문맹 등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2017년 | 48.5 | 51.6 | 11.3 | 17.8 | 5.0 | 2.0 | 0.5 | 1.5 | 3.7 | 27.3 | 0.7 |
| 2019년 | 51.6 | 54.1 | 12.8 | 12.8 | 5.9 | 3.1 | 0.2 | 1.5 | 7.1 | 22.9 | 0.9 |
| < 지역 별 > | | | | | | | | | | | |
| 중부권 | 49.5 | 62.4 | 13.6 | 18.4 | 0.9 | 2.3 | | 3.5 | 13.3 | 22.9 | 1.2 |
| 북부권 | 58.9 | 54.1 | 9.4 | 11.5 | 3.1 | 5.0 | 0.7 | 0.6 | 3.4 | 9.5 | 0.3 |
| 서남부권 | 47.8 | 45.1 | 14.6 | 7.6 | 13.7 | 2.3 | | | 3.2 | 33.9 | 1.0 |
| < 성 별 > | | | | | | | | | | | |
| 남자 | 53.5 | 59.3 | 14.4 | 9.7 | 5.5 | 4.3 | 0.4 | 1.9 | 5.1 | 21.1 | 0.2 |
| 여자 | 49.7 | 49.0 | 11.1 | 15.7 | 6.3 | 1.9 | | 1.1 | 9.0 | 24.7 | 1.5 |
| < 연령 별 > | | | | | | | | | | | |
| 15~29세 | 45.7 | 54.5 | 38.6 | | 4.7 | 5.6 | | | 2.7 | 6.3 | |
| 30~39세 | 44.0 | 66.4 | 30.5 | 5.9 | 4.0 | 7.2 | | | 7.9 | 10.7 | |
| 40~49세 | 59.0 | 62.2 | 17.8 | 1.8 | 5.6 | 4.1 | | 4.2 | 2.1 | 26.2 | |
| 50~59세 | 56.7 | 70.0 | 7.6 | 3.7 | 4.9 | 5.3 | 0.6 | 2.1 | 6.0 | 20.5 | |
| 60세 이상 | 50.7 | 43.6 | 3.1 | 23.9 | 7.0 | 0.5 | 0.2 | 1.3 | 9.8 | 29.9 | 1.8 |
| 65세 이상 | 57.8 | 9.6 | 5.9 | 29.6 | 2.1 | 2.1 | 0.6 | 4.4 | 13.8 | 33.4 | 0.9 |

자료: 신안군 사회조사